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로 미래발전 이끈다

시, 통합특별시 출범·지방선거 대응 공약과제 제시 해상풍력·해양모빌리티 등 8대 분야 26개 실행과제

목포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목포 미래발전 8대 공약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해상풍력, 해양모빌리티, 수산식품, 항만, 보건,

SOC, 관광, 균형발전 등 8대 분야, 2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장기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해양 기반 신산업 육성이다. 목포 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보수(O&M) 산업을 육성해 서남해 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 선박과 합정 정비(MRO), 수중드론 산업을 중심으로 해양모빌리티 분야 경쟁력도 강화 할 방침이다. 수산식품 분야에서는 김 산업 중심의 구조에서 기술·가공·브랜드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고 항만은 전자상거래 특화와 국제

항로 확대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서남권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포함됐다. 전남 지역의 데이터센터 유치 등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통합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의료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교통망 확충도 주요 과제다. 서해안 철도(목포~군산)와 목포신항~무안공항 광역도로망 구축, 목포역 대개조의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미식과 문화, 섬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전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역할과 기능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현 단계에서 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약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실행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진용 목포시 기획예산과장은 “통합은 분명히 기회이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제안한 과제들이 각 당국의 공약에 충실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gwangnam.co.kr



심우정 정성부군수가 '중동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서별 위기관리 대응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성군청

장성, 중동 사태 장기화...군민 살피는 민생안정 '온힘'

비상경제대책 전담반 운영...농업·의료 등 대응

장성군이 '중동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서별 위기관리 대응보고회'를 갖고 민생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 업체는 화장품, 통신장비·부품, 전자 기기 등을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7개 기업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업들은 물류비 상승, 운송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

팀)'을 운영해 기업의 피해 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각종 애로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적절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나아가 장성의 위기관리대책 실행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는다. 취약주민을 위한 긴급 지원도 펼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주민에 가구당 5만원의 생계비로 지원하고, 오는 5월부터는 1회 2만원 한도로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주민 불편 최소화에도 힘쓴다. 군은 지난 3월 올해 사용할 중앙재분투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국제 유가 및 가스비 인상으로 운영 부담이 가중된 농어촌 공중목욕장 2곳(북아·삼서)에는 전남도 예비비로 편성된 긴급운영비를 각각 210만원씩 지급한다. 비료,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농업인을 위해 '농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농가 사료 구매 용자·이자지원 연계 등도 펼친다. 의료분야에서는 주사기, 주사침 등의 의료소모품 확보 물량 감소에 대비해 지역 의료기관에 선제적인 비축을 당부하는 한

편, 정부 보유물량 지원 요청도 검토한다. 그밖에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심우정 정성부군수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실행 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해 가겠다"면서 "각 부서에서는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과 현장 점검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화순, 민·관 협력 지역상권 살리기 '시동'

'2026 화순 봄꽃 축제' 연계...소상공인 275곳 참여

화순군이 '2026 화순 봄꽃 축제' 성공 개최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관 소비 진작에 나선다. 16일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축제 기간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6 화순 봄꽃 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참여업체 275개소 가운데 3개 업소에서 각각 1만원 이상 구매한 이용객에게 선착순으로 세라믹 냄비를 증정한다. 김경수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봄꽃 축제는 평일에 한해 운영되며, 증정품은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증정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행사 기간 내 각 참여업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지참해 화순군소상공인지원센터(여울림센터 2층)를 방문하면 된다. 참여업체 목록과 세부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군은 축제기간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5000원 이상 즉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쿠폰을 1인당 2회 제공한다. 쿠폰은 다른 할인쿠폰과 중복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더 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이용자 혜택 확대를 위해 오는 5월과 8월에도 할인쿠폰 제공과 공짜 배달 등 추가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김경수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봄꽃 축제를 계기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군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 7월 7일 설립돼 현재 28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 물가안정 및 상권 활성화 캠페인,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화순=구영규 기자 yk335@gwangnam.co.kr

기후주간 맞아 여수 오동도 '새단장'

시설 정비·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 개선 추진

여수시는 다가오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3차 기후주간 및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맞아 오동도 내 시설물 정비와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정비는 국내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공원 내 관공·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해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등백열차 객실 내부 보수·타이어 교체, 코끼리 전망대·입구 시설물 보수·탐방로 세척, 공중화장실 청소·방역, 음악분수 데크 정비, 해양쓰레기 수거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오동도 내 노후 시설물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

며, 음악분수 정비와 환경 정비를 마무리하는 등 관광객 맞이 준비를 마쳤다. 특히 기후주간을 맞아 방문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음악분수 야간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제행사를 앞두고 오동도를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청정 해양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담양군 고서면이 고향사랑기금 공모 사업으로 조성한 '마을공동 무료 세탁방' 개소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담양군청

담양 고서면, 마을공동 세탁방 정식 운영

고향사랑기금 활용...어르신·장애인 등 호응

담양군 고서면이 고향사랑기금 공모 사업으로 조성한 '마을공동 무료 세탁방'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운영한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고서면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빨래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세탁방을 시범 운영했다. 총 16회의 운영 기간 28개 마을에서 이불 207채를 세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부피가 큰 이불을 쉽게 세탁하고, 취약계층의 위생 관리도 상당부분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특히 고서면 마을공동 세탁방은 주민자치회와 적십자봉사회가 참여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협력의 모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군은 고향사랑기금 공모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 세탁방 지원사업 △병원 동행 및 퇴원 환자 돌봄 △청소년 영어 문 화유산 해설사 양성 △아동·청소년 마음 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역 장비 지원 △소상공인 야간 경관 조성 등에 나서고 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영광지역 농업회사법인 ㈜이로운세상과 일본 농사조합법인 미토요시 차업조합이 새싹인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영광군청

영광 '새싹인삼' 일본 수출 기반 구축

현지 업체와 협약...판로·지속가능 농업 경쟁력 강화

영광 지역 농업회사법인 ㈜이로운세상은 최근 영광농업기술센터에서 일본 농사조합법인 미토요시 차업조합과 새싹인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농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새싹인삼을 중심으로 한 일본 수출 기반 구축에 상호 협력한다. ㈜이로운세상은 지난 2018년 귀농한 양진선 대표를 중심으로 설립된 지역 농업법인으로, 영광군의 귀농 정착 지원과 창업 기반 지원을 바탕으로 새싹인삼 수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해 왔다. 일본 가가와현 미토요시시에 위치한 미토요시 차업조합은 녹차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 농업조합으로, 최근 녹차 소비 감소에 대응해 새로운 작목 도입을 검토하던 중 인삼 수경재배에 주목하고 이로운세상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싹인삼 및 농산물의 일본 수출 확대 △현지 판로 개척 △농업기술 및 재배 노하우 교류 △지역 농업 활성화 및 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욱 영광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광에서 생산된 새싹인삼의 일본 시장 진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품질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